

1996년 하반기 시멘트 수급 전망

김 재 영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 개 황

1996년도 상반기에는 시멘트 수급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1월부터 시멘트 수요의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되어 5월에는 시멘트 재고가 60만톤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다. 고려와 한일 시멘트 공장의 일시적 조업 중단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든가 그동안 기상조건이 양호해서 예상보다 시멘트

소비가 증가하였다는 등 여러 이유가 있었다. 시멘트 공장들이 정상 가동되었고 앞으로 장마철에 들어서면 시멘트 소비도 점차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시멘트 수급불안정은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과거의 추이에 비추어볼 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1996년도 하반기에는 시멘트 수요량은 3,158만톤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국내 시멘트 생산여건을 감안할 때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계절적인 성수기인 4/4분기 특히 10월과 11월에 수급이 다소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시멘트 수급은 크게 불안정하지 않을 것이 과거의 추이이나 상반기에 총 수요의 증가보다는 생산과 수입에 차질이 불안정해졌고 상반기에 부족분이 하반기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1996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시멘트 수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시멘트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시멘트 수요의 증가속도에 비하여 시멘트 생산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 때문에 시멘트 수급불안정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시멘트 유통체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지역간 수급 불균형도 심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의 시멘트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시멘트 수요의 증가속도에 비하여 시멘트 생산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 때문에 시멘트 수급불안정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시멘트 유통체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지역간 수급 불균형도 심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시멘트 수급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건설투자 동향

건설자재 수요를 유발하는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공 또는 민간의 투자심리와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등이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투자요인은 달리 나타난다. 주거용 건설투자의 경우 소득과 주택가격변화 등이 주요인이고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소득수익률, 일반경기 변화 등이 주요인이다. 그리고 토목용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책과 일반경기 변화 등이 주요인이다.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경기위축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주택수요의 감소는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이 계속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토목용 건설투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건설투자의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건축투자는 경제성장률의 신장에 비할 때 다소 낮으나 토목용 건설투자는 이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용 건설투자는 전년 동반기에 비할 때, 증가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주거용 건설투자는 전년 동분기 대비 2.6% 증가한 9조2천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95년 상반기에 비해 1.4% 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하반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1.4% 감소한 9조2천6백6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95년 하반기에 비해 그 증가율이 14.5% 포인트 낮아졌다.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경기위축으로 상업용과 공업용

〈표-1〉 1996년 하반기 건설투자 전망

(단위:십억원(1990년불변가격), (%))

| 구분 | | 주거용 | 비주거용 | 토목용 | 총건설투자 |
|------|---------|--------------|---------------|---------------|---------------|
| 1995 | 1/4 (%) | 4,144 (-1.1) | 3,781 (13.4) | 3,059 (14.1) | 10,984 (7.6) |
| | 2/4 (%) | 4,832 (8.8) | 3,886 (14.6) | 5,260 (4.9) | 13,978 (8.8) |
| | 상반기 (%) | 8,976 (74.0) | 7,667 (14.0) | 8,319 (8.1) | 24,962 (8.3) |
| | 하반기 (%) | 9,395 (13.1) | 7,829 (12.0) | 13,410 (9.6) | 30,634 (11.3) |
| | 년간 (%) | 18,473 (8.5) | 15,496 (13.0) | 21,729 (9.0) | 55,596 (9.9) |
| 1996 | 1/4 (%) | 4,438 (7.1) | 3,947 (4.4) | 3,697 (20.9) | 12,082 (10.0) |
| | 2/4 (%) | 4,769 (-1.3) | 4,034 (3.8) | 6,381 (21.3) | 15,184 (8.6) |
| | 상반기 (%) | 9,207 (2.6) | 7,981 (4.1) | 10,078 (21.1) | 27,266 (9.2) |
| | 하반기 (%) | 9,266 (-1.4) | 7,998 (2.2) | 15,537 (15.9) | 32,801 (7.1) |
| | 년간 (%) | 18,473 (0.6) | 15,979 (3.1) | 25,615 (17.9) | 60,067 (8.0) |

주) 1996년 1/4분기 실적치를 토대로 예측하였음

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년 동반기 대비 4.1% 증가한 7조9천8백1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의 증가폭에 비해 9.9%포인트 낮아졌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감소세가 이어져 전년동분기에 대비하여 2.2% 증가한 7조9천9백80억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토목용 건설투자 수준은 정부가 경기안정정책과 연계시켜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경우 불안정해지는 예가 많다. 금년에 상반기에는 단기적으로 토목용 건설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상반기 토목용 건설투자는 전년 동반기 대비 21.1% 증가한 10조7백8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지만 전년 동반기 대비 15.9% 증가한 15조5천3백70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건설투자는 토목용 건설투자의 강세로 건축용 건설투자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는 전년 동반기 대비 9.2% 증가한 27조 2천6백6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도 증가세는 이어져 전년 동반기대비 7.1% 증가한 32조8천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1996년 하반기의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설투자와 비주거용 건설투자 등 건축투자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토목용 건설투자의 강세로 인하여 전년도 동반기의 증가세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평년수준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건설투자의 증가세는 건설자재나 건설인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하반기 시멘트 수급동향

건설자재수요는 건설활동에 의하여 유발되어지는 수요이다. 따라서 건설자재수요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등 건설부문의 단위투자당 자재소비량 즉 원단위를 근거로 추정한다. 각 부문별 원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건설자재수요는 건설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원단위는 1) 실제현장조사에 의한 방법 2)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1)의 경우는 건설자재의 소비현황을 매년 또는 매분기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 또는 공법의 변화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설자재소비 양상을 감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2)는 총량적인 자재소요를 파악하고 또한 금액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으나, 자료이용이 용이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주요 건설자재수요를 추정하였다.

한편 건설자재는 건설공정에 따라서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공급과 소비가 동일시점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시멘트나 철근의 경우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자재생산 공장에서 출하량과 추정된 수요량은 다르며 변동양상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생산공장에서의 출하는 자재수요의 선행지표의 성격을 지니며 실제 건설자재수요는 일정기간의 건설활동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자재수요는 건설투자의 유발수요로 보아 추정하는 것이다.

10억원의 건설투자를 할 경우에 유발되어지는 시멘트의 10억원당 수요량 즉 원단위는 1990년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추정하였다. 주거용의 경우 원단위는 1,331톤/10억원, 비주거용의 경우 858톤/10억원, 토목용 건설투자의 경우 797톤/1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건설투자액과 원단위를 이용하여 1996년 상반기의 시멘트 수요량을 추산한 결과 전년 동분기 대비 7.9% 증가한 2천7백14만톤이 수요될 것으로 추산되

〈표-2〉 1996년 시멘트 수급동향

(단위 : 천톤)

| 구분 | | 수 요 | | | | 공 급 | | | |
|----|-----|------------------|-------|------|------|-----------------|------------------|------------------|-----------------|
| | | 수량 | 비중(%) | | | 공급량 | 국내생산 | 수입 | 재고 |
| | | | 주거용 | 비주거용 | 토목용 | | | | |
| 95 | 1/4 | 11,198 | 49.3 | 29.0 | 21.8 | 11,171 | 10,881 | 290 | 1,422 |
| | 2/4 | 15,978 | 46.1 | 23.9 | 30.0 | 15,978 | 15,402 | 575 | 702 |
| | 상반기 | 27,150 (7.6) | 47.5 | 26.1 | 26.4 | 27,150 (9.3) | 26,284 (9.9) | 865 (-7.5) | 702 (5.0) |
| | 하반기 | 29,913 (11.6) | 41.8 | 22.4 | 35.8 | 30,062 (3.3) | 28,845 (4.0) | 1,217 (-12.0) | 860 (-20.5) |
| | 연간 | 55,070 (9.7) | 44.4 | 24.1 | 31.5 | 27,212 (6.0) | 55,130 (6.8) | 2,082 (-10.2) | 860 (-20.5) |
| 96 | 1/4 | 12,241 | 48.3 | 27.7 | 24.1 | 11,310 | 10,807 | 502 | 1,391 |
| | 2/4 | 14,896 | 42.6 | 23.2 | 34.2 | 16,090 | 15,193 | 898 | 560 |
| | 상반기 | 27,137 (7.9) | 45.2 | 25.2 | 29.6 | 27,400 (0.9) | 26,000 (-1.1) | 1,400 (61.8) | 560 (-20.2) |
| | 하반기 | 31,582 (5.6) | 39.1 | 21.7 | 39.2 | 31,800 (5.8) | 30,000 (4.0) | 1,800 (47.9) | 778 (-9.5) |
| | 연간 | 58,718 (6.6) | 41.9 | 23.3 | 34.8 | 59,200 (3.5) | 56,000 (1.6) | 3,200 (53.7) | 1,000 (-9.5) |

주 : 1) 시멘트수요는 유발수요로 시멘트 출하와는 다름

2) 공급량 = 생산 + 수입 + 전월재고입

3) 각 부분의 시멘트 수요 = 신규건설 + 보수분입

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약 4백45만톤 증가한 3천 1백58만톤이 수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전년도 동반기에 비할 때 5.6% 증가한 셈이다. 이를 각 부문 별의 수요로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주거용 건설에 수요되는 시멘트가 45.2%, 비주거용과 토목용 건설에 수요되는 시멘트가 각각 25.2%, 29.6%로 주거용 건설에 수요되는 시멘트량이 많았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주거용 건설에 39.1%, 비주거용과 토목용 건설에 각각 21.7%와 39.2%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시멘트 수요구조의 변화는 시멘트 수급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멘트 공급능력은 국내생산분과 수입분의 합계로 판단할 수 있다. 시멘트 생산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연평균 10.4% 증가하여 1995년 현재 시멘트 생산량은 5천5백13만톤이었다. 1996년

5월말 현재 시멘트 생산량은 2천11백24만톤으로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0.5% 증가한 셈이다. 이와 같은 추이라면 1996년도 시멘트 생산량은 전년도 생산량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 5천6백만톤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멘트 수입을 확대하여도 내수용 시멘트의 공급량은 5천9백20만톤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 시멘트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도 시멘트 수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4. 결 론

10월 또는 11월에도 시멘트 수급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듯이 하반기의 시멘트 수급은 낙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과거에는 계절

적으로 시멘트 수급이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으나 1996년대에 들어서 계절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시멘트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만큼 시멘트 공급여건이 불안하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시멘트 수급불안정이 단기 계절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지 않고 시멘트 공급구조상의 문제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시멘트 수급불안정이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은 1990년대의 시멘트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시멘트 생산량은 1995년 현재 약 5,513만 톤으로 1990년에 비해 약 2,155만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출을 제외한 국내 출하량은 1995년 현재 약 5,646만톤으로 1990년에 비해 2,256만톤이 증가하였다. 결국 국내생산분만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1978년 건설경기 과열기를 제외하고는 1989년까지는 우리나라는 시멘트 수출국이였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서 시멘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210만톤을 수입하였고 1991년과 1992년에는 707만톤과 555만톤을 수입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도 208만톤을 수입하였다. 같은 기간에 수출은 크게 감소하여 1990년 156만톤이었고 1995년에는 97만톤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수입을 통해서 시멘트 수급을 조정할 셈이다. 바꾸어 말하면 시멘트 수입을 통하여 시멘트 수급 안정을 기여하여 왔다 하겠다.

시멘트 산업은 장치산업이며 환경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최근과 같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규모가 큰 시멘트 공장을 늘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국내 생산분만 가지고 시멘트 수급을 안정시키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듯 공급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시멘트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멘트 수요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러나 시멘트 수요 구조를 단기간에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멘트수요는 건설생산기술과 건설투자구조 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즉 건설생산양식의 변화 없이는 시멘트 소비량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감안할 때 시멘트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멘트 수급구조가 안정될 때까지 수입선을 확보하여야 하고 저장능력을 제고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시멘트 수입선 확보나 저장능력의 제고가 용이한 것은 아니다. 동남아나 동북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제성장과 산업활동 증가에 따른 건설붐으로 시멘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 5월현재 시멘트 수입물량은 약 100만톤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저간의 사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러한 추이라면 시멘트 수급불안정은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멘트 수입선의 확보와 저장능력의 제고는 시멘트 생산업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설업체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시멘트 수입선 확보를 위해 공동노력을 해야 하고 시멘트 수급조절을 위한 저장 「사이로」의 건설 등에도 투자를 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시멘트 수입선 확보는 1990년과 1991년도의 경험을 살리면 될 것이다. 건설업체가 시멘트 수입선을 원활히 확보하고 저장능력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통산산업부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원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시멘트 생산량 확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친환경적인 시멘트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